

한국교회 청년들의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 요인 분석*

함영주(총신대학교/부교수)**

yjham@chongshin.ac.kr

이현철(고신대학교/부교수)

hyunchul@kosin.ac.kr

한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교회 이동과 신앙생활 포기 의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해당 의향과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사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2021년 Align Research Center for Christianity(ARCC)의 청년실태조사 데이터이며, 전국단위의 1,017명(남성, 409명, 여성 608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한국교회 내 청년들의 교회 이동과 신앙생활 포기 의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향후 교회 이동과 신앙생활 포기 인식에 대한 기초 통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주요 항목에 대한 집단별(의향 수준별) 인식의 차이,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에 대한 영향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 본 논문은 2021년 4월 Align Research Center for Christianity(ARCC)에서 주최한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발표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함영주, 교신저자: 이현철

《 주제어 》

한국교회, 청년, 딜레마, 신앙생활, 교회 이동, 목회자

I. 들어가는 말: 연구의 목적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은 최근 한국사회의 종교 현황과 추세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이해도를 확장하는 데 있어 유의미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해당 자료는 개신교를 포함하여 한국사회 내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와 관련된 기초 통계, 조직 현황, 종단적인 증감 추이 등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개신교의 양상과 흐름도 흥미롭게 담아주고 있다. 특별히 해당 자료에서는 연령별 종교의 특성도 제시해주고 있는데 2015년도를 기준으로 0세에서부터 85세 이상까지의 종교별 실태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서 한국교회의 미래세대로서 청소년 및 청장년 연령층의 항목만을 선별한 내용인데, 해당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개신교의 해당 세대에 대한 양적인 수치가 주요 종교의 수준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0세에서부터 85세 이상까지의 전체 연령대를 모두 포괄하더라도 전체 불교 신자는 7,619,332명, 개신교 9,675,761명, 천주교 3,890,311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신교인의 수가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나 미래세대 연령대의 비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타종교의 비하여 높은 비중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표 1〉 연령별 불교/개신교/천주교 인구(단위: 명)

	불교	개신교	천주교
10~14세	198,794	584,355	168,090
15~19세	267,185	641,974	213,822

	불교	개신교	천주교
20~24세	263,675	533,428	209,089
25~29세	307,745	518,165	228,746
30~34세	398,822	642,277	278,500
35~39세	452,154	719,839	285,417
40~44세	595,004	827,744	306,325
45~49세	720,114	822,933	318,281
합계	3,203,493	5,290,715	2,008,270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p.96. 재구성.

하지만 개신교의 해당 결과가 타종교와의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지 해당 수치가 이후의 개신교의 안정적인 유지와 존속을 보장해주는 절대적인 수치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통합, 고신, 합신과 기독교대한장로회(기장)가 총회에 보고한 교세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9년 한 해 주요 장로 교단들의 목사 수는 2018년 대비 증가했으나, 성도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기독신문, 2020.10.13. 기사). 구체적으로 예장합동은 목사 수가 2만4395명에서 2만4855명으로 460명 증가했으나 교회 수는 1만1885개에서 1만1758개로 소폭 하락했으며, 총 교인 수는 265만6766명에서 255만6182명으로 10만명이나 감소하였다. 또한 예장통합도 유사한 맥락인데, 목사는 2만506명에서 2만775명으로 269명 증가했으며, 교회도 9190개에서 9288개로 98개 많아졌으나 총 교인 수는 250만6985명으로 전년 대비 4만7242명이나 줄어든 것이다(기독신문, 2020.10.13. 기사). 더욱이 최근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교회의 교인 수 감소와 위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한 맥락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 교회의 현존하는 미래로서의 청년 세대들이 최근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로 대변되었던 교회의 청년층이

이제는 은퇴세대가 되었으며, 그 자리를 386세대와 X세대에 이어 1980년대 이후 태어난 Y 혹은 Z세대로 대변되는 밀레니얼들(millennials)이 대체하고 있으나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ARCC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밀레니얼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과 과거 세대가 큰 차이를 보이며, 이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목소리들을 실제로 제공해주었다(신승범·이수인·이종민·이현철·전병철·함영주, 2021).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고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와 공동체를 구성해나가는 문화와 형식도 기존의 세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 한국교회 내 청년 세대들의 목회자에 대한 인식, 공동체에 대한 인식, 교회 헌신에 대한 태도, 개인 신앙의 가치 등 신앙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요소의 인식에 있어 기성 세대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상황을 고려하면서 청년 세대를 바라보고 교회 사역에 임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교회 이동과 신앙생활 포기 의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해당 의향과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사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한국교회 내 청년들에 대한 이해도를 확장시켜줄 것이며, 관련 사역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한국교회 청년의 위기

청년기는 인간 발달 단계 중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있는 단계이지만 이들 단계와는 구분되는 독특성이 있으며 특히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아넷(Arnett, 2004, 7-17; 박향숙, 2013, 183에서 재인용)은 청년기를 신생성인으로 부르며 “정체성 탐색의 시기, 불안정의 시기, 가장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 사이에 낀 느낌의 시기, 가능성의 시기”로 분석하며 성인전기가 변화의 시기임을 드러내 준다. 이규민·김은주

(2020, 128-130)는 청년기를 “재정의”하는 시기로 규정하며 “공간과 시간, 이데올로기, 권위, 사랑, 일”에 있어서 재정의가 이루어지는 변화의 시기임을 밝힌다. 또한 이명자·문병상(2000, 100-104)은 ‘청년기는 신체와 성의 기능에 상당한 변화, 자아중심성과 자기조절능력의 발달,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 자아정체감의 문제’ 등을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즉 청년의 시기는 청소년 시기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다면적인 측면에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들이 삶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기의 주요한 발달의 과업은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정체감을 확립의 문제, 관계적 요인으로 이성교제와 결혼의 문제, 경제적 요인으로 진로와 직업 선택의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기의 관계적, 경제적, 교육적, 심리적 관계들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개인의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정은·박정운·문의정, 2019, 182-187). 또한 청년기의 발달상의 이슈들은 개인적 효능감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결혼 및 취업 등과 관련된 청년기의 발달의 과업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할 때 사회적 고립감이 심해질 수 있다(김재희·박은규, 2016, 270-273). 이는 청년기 발달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기 발달의 이슈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고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을 경우 청년들은 정체감의 혼란과 사회적 관계의 불안정으로 인해 건강한 발달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한편 청년기의 개인적, 사회적 불안정성은 신앙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정화·강연정, 2020, 241-243). 신앙은 다차원적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의 내적 관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회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들과의 관계적 불안정성은 결국 신앙 형성과 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문제가 청년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박동규(2013, 42-48)는 청년들

이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교회의 이미지 문제, 목회자 문제, 사회적 사명 문제, 이원론적 삶의 문제, 이기주의 문제’ 등을 꼽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청년들의 신앙적 불안정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청년들을 “목회적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신앙공동체가 노력하는 것이다(최종일, 2020, 400-404).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러한 청년들의 신앙적 성장을 위해 교회는 전인적인 영성교육을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강문규, 2019, 247-250),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한 영성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김광률, 2012, 209-215). 박향숙(2014, 298-299)은 청년들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소명 탐색을 위한 교육, 자신의 신앙 내러티브를 재해석 할 수 있는 교육, 신앙공동체와 함께 하는 신앙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로 청년들이 겪는 삶과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신앙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청년부의 양적, 질적 쇠퇴는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교회 청년 세대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옮기는 요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개인 수준의 차원으로 이원규(2010)는 청년기의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사고로 인해 ‘탈종교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최민영·홍경화(2015)는 기독교청년들의 경우 종교적인 강박증의 내면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 지속에 대하여 개인 수준을 넘어 교회 수준의 차원도 확인되는데, 이상화(2007)는 출석교회에 대한 실망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학원복음화협회(2017)에서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서 교회의 비도덕적 모습, 교회 밖에 대한 배타성, 헌금 강요, 교회에 대한 실망, 권위주의적 모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은 청년들의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 지속과 관련된 요소들이 다양한 수준과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교회에 속한 청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신앙의 위기를 경

힘하고 있고 그 결과 신앙을 포기하거나 혹은 교회를 이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건강한 신앙성장을 도모하고 청년부 사역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청년들이 교회를 이동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문헌연구를 통한 분석이거나 혹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한 빈도와 비율 제시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추론통계 방식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청년들의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 의향을 조사하고 추론통계 방식의 분석법을 활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 및 분석대상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활용된 변수와 주요 문항의 요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연구전반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주요한 기초 정보가 될 것이며, 분석방법을 통해서 분석 결과의 도출 과정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데이터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Align Research Center for Christianity(ARCC)의 2021년 청년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Align Research Center for Christianity는 세상과 교회의 가교역할과 한국교회 내 다양한 사역들의 연합을 위해 설립된 기독교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실천적인 측면을 지향하며

초과적으로 신학과 다양한 일반 학문 전공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자 한다(ARCC 대표 윤은성 목사). 분석 데이터는 전국단위의 1,017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남성이 409명(40.2%), 여성이 608명(59.8%), 연령대는 20대가 658명(64.7%), 30대가 269명(26.5%)이었다. 신앙경력은 모태신앙이 657명(64.6%)과 11년 이상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청년 중 현재 교회 출석 유무의 경우 출석하고 있는 대상이 895명(88%),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청년 122명(12%)가 응답하였다. 해당 조사는 ARCC에서 2021년 1월 13일~2월 4일까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네이버 폼을 활용한 편의표집 방식의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표 2〉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구분		N(%)	총계(%)
성별	남성	409(40.2)	1,017(100.0)
	여성	608(59.8)	
연령대	10대	7(0.7)	1,017(100.0)
	20대	658(64.7)	
	30대	269(26.5)	
	이상	83(8.2)	
신앙경력	모태신앙	657(64.6)	1,017(100.0)
	1-5년	42(4.1)	
	6-10년	69(6.8)	
	11-20년	129(12.7)	
	21-30년	74(7.3)	
	31년 이상	46(4.5)	
현재 교회 출석유무	출석	895(88.0)	1,017(100.0)
	미출석	122(12.0)	

2. 변수설정 및 설문문항

본 연구는 청년들의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에 대한 인식도 조사로서 본 연구의 설문문항을 설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화(2007)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에서 33가지의 세부적인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유목화하면 개인 신앙의 본질적 고민,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 교회 내 분쟁, 사회적 관심의 부재, 신앙인의 이원론적 삶, 배타적 문화, 교리적 이유, 개인적 이유, 경직된 교회 문화, 관계적 요인 등을 꼽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2016)의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은 교회/지도자 이슈, 관계/공동체 이슈, 개인/가정이슈 등으로 교회를 떠난다고 발표하였다(성결신문, 2016.05.03.). 또한 학원복음화협회의 『청년 트렌드 리포트: 우리시대 청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의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 교회의 비도덕적 모습, 교회 밖에 대한 배타성, 헌금강요, 교회에 대한 실망, 율법적 신앙, 기독교 의심자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 권위주의적 모습’ 등으로 분석하였다(2017, 379-380). 새길과 새일(2019)의 설문조사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 믿음에 대한 강요, 관계의 문제, 목회자의 비윤리적 삶, 믿음 부족 등을 꼽았다(데일리굿뉴스, 2019.7.3.). 이와 같은 선행조사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 청년공동체, 이성관계, 개인신앙, 청년소그룹, 교회문화, 헌신강요, 사회관계, 경제, 진로, 개인일상, 관심위로 등 12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57개의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는 청년, 신앙을 떠날 의향이 있는 청년, 그리고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청년 등 소위 ‘신앙위험군’ 청년들에 대한 분석이 핵심이기 때문에 12개의 요인 중에서 이 세 집단의 평균점수 합계 상위 5개 요인을 선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더불어 청년들의 부서 출석 이유와 청년부에서 기대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본 설문지의 타당도와 관련하여 기독교교육 전공 교수 4인에게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주요 요인과 문항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본 연구의 문항 영역 및 요인

요인	요인설명	문항수	신뢰도
목회자	목회자의 설교, 말, 행동, 무관심 등	8	.918
청년공동체	청년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말, 문화, 소통 등	5	.885
개인신앙	개인의 종교에 대한 회의감, 영적 갈급함 등	7	.887
교회문화	교회 내 비교문화, 비민주적 의사소통, 직분자의 모습 등	7	.853
헌신강요	청년들에 헌신강요, 헌금강요 등	2	.659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교회 내 청년들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개인적 배경 및 기초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문항은 신뢰도 분석이 적용되었으며, 신뢰도계수는 문항 영역별로 .659~.918 수준으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의 주요 인식과 배경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의 주요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전술한 내용에 기초하여 한국교회 내 청년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향후 교회 이동과 신앙생활 포기 인식, 주요 항목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 분석,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에 대한 영향 요인, 청년들의 교회 출석 이유 및 기대요인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향후 교회 이동과 신앙생활 포기 의향에 대한 인식

향후 교회 이동과 신앙생활 포기 의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향후 교회 이동 의향이 높은 상 집단의 경우 320명으로 전체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향이 보통인 중 집단은 224명으로 22.0%, 교회 이동 의향이 낮은 하 집단은 473명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향후 신앙생활 포기 의향이 높은 상 집단은 80명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인 중 집단은 61명으로 6.0%, 하 집단은 876명으로 86.1%로 나타났다.

〈표 4〉 향후 교회 이동과 신앙생활 포기 의향에 대한 인식

구분		N	%	총계(%)
향후 교회 이동 의향	의향 없음(하)	473	46.5	1,017(100.0)
	의향 보통(중)	224	22.0	
	의향 높음(상)	320	31.5	
향후 신앙생활 포기 의향	의향 없음(하)	876	86.1	1,017(100.0)
	의향 보통(중)	61	6.0	
	의향 높음(상)	80	7.9	

2. 주요 항목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

‘향후 교회 이동 의향’ 수준별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살펴보면 교회를 옮길 의향 수준에 따라 목회자 요인, 청년공동체 요인, 개인신앙 요인, 교회문화 요인, 헌신강요 인식에 있어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01$) 인식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즉, 교회를 옮길 의향이 높은 집단(상)은 주요 인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와 인식은 사후 검증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표 5〉 ‘향후 교회 이동 의향’ 수준별(상/중/하) 차이에 따른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목회자 요인	의향 없음(하)	2.1757	1.06035	96.210** 상)하,중 중)하
	의향 보통(중)	2.6378	1.14627	
	의향 높음(상)	3.2672	1.08414	
청년공동체 요인	의향 없음(하)	2.3294	1.15164	48.161** 상)하,중 중)하
	의향 보통(중)	2.6500	1.17110	
	의향 높음(상)	3.1444	1.12382	
개인신앙 요인	의향 없음(하)	1.9079	.96318	106.080** 상)하,중 중)하
	의향 보통(중)	2.2723	1.03153	
	의향 높음(상)	2.9607	1.03096	
교회문화 요인	의향 없음(하)	1.7188	.78672	110.597** 상)하,중 중)하
	의향 보통(중)	2.0740	.91308	
	의향 높음(상)	2.6804	1.01986	
헌신강요 요인	의향 없음(하)	1.9715	1.04746	78.118** 상)하,중 중)하
	의향 보통(중)	2.3973	1.19254	
	의향 높음(상)	3.0219	1.29121	

**p<.001, Scheffe 검증

‘향후 신앙생활 포기 의향’ 수준별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살펴보면 신앙생활 포기 의향 의향 수준에 따라 목회자 요인, 청년공동체 요인, 개인신앙 요인, 교회문화 요인, 헌신강요 인식에 있어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1) 인식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신앙생활 포기 의향이 높은 집단(상)은 주요 변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6〉 ‘향후 신앙생활 포기 의향’ 수준별(상/중/하) 차이에 따른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목회자 요인	의향 없음(하)	2.5195	1.16103	24.244** 상)하, 중)하
	의향 보통(중)	3.2172	1.08106	
	의향 높음(상)	3.2766	1.18747	
청년공동체 요인	의향 없음(하)	2.5630	1.17964	19.947** 상)하, 중)하
	의향 보통(중)	3.1967	1.13107	
	의향 높음(상)	3.2675	1.18981	
개인신앙 요인	의향 없음(하)	2.1691	1.02657	67.707** 상)하, 중)하
	의향 보통(중)	3.1265	1.06748	
	의향 높음(상)	3.3500	1.07601	
교회문화 요인	의향 없음(하)	1.9715	.91217	59.951** 상)하, 중)하
	의향 보통(중)	2.8220	1.00768	
	의향 높음(상)	2.9518	1.08629	
헌신강요 요인	의향 없음(하)	2.2483	1.18092	50.145** 상)하, 중)하
	의향 보통(중)	3.1066	1.22173	
	의향 높음(상)	3.4688	1.26126	

**p<.001, Scheffe 검증

교회 출석과 미출석(가나안청년)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을 살펴보면 목회자 요인, 청년공동체 요인, 개인신앙 요인, 교회문화 요인, 헌신강요 요인에 있어 p<.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항목에 있어 모두 교회 미출석(가나안청년) 집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집단의 주요 변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표 7〉 교회 출석과 미출석(가나안청년) 집단 간의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목회자 요인	교회 출석	2.5535	1.16545	-4.975**
	교회 미출석(가나안청년)	3.1158	1.21236	
청년공동체 요인	교회 출석	2.5832	1.18191	-5.343**
	교회 미출석(가나안청년)	3.1934	1.19474	
개인신앙 요인	교회 출석	2.2348	1.07160	-6.600**
	교회 미출석(가나안청년)	2.9403	1.09997	
교회문화 요인	교회 출석	2.0190	.94851	-7.242**
	교회 미출석(가나안청년)	2.6909	1.05128	
헌신강요 요인	교회 출석	2.2978	1.20048	-6.950**
	교회 미출석(가나안청년)	3.1148	1.34039	

**p<.001

3.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 의향에 대한 영향 요인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에 대한 영향을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향후 교회 이동 의향에 대하여 목회자 요인, 개인신앙 요인, 교회문화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향후 교회 이동 의향'에 대한 주요 변수의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표준화 β	t	유의수준
향후 교회 이동 의향	상수	.828	.068		12.162	.000
	목회자 요인	.129	.029	.176	4.486	.000
	청년공동체 요인	-.014	.027	-.019	-.527	.598
	개인신앙 요인	.161	.031	.203	5.270	.000
	교회문화 요인	.142	.044	.160	3.253	.001
	헌신강요 요인	.020	.030	.029	.671	.502

R=.475, R square=.226 , 조정된 R square=.222 Durbin-Watson=1.918
--

구체적으로 회귀식에 대한 R제곱값은 .226으로 22.6%(수정 계수는 22.2%)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Durbin-Watson은 1.918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교회를 옮길 의향과 관련된 주요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목회자 요인(표준화 $\beta=.176$, $p<.001$) , 개인신앙 요인(표준화 $\beta=.203$, $p<.001$), 교회문화 요인(표준화 $\beta=.160$,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회자, 개인신앙, 교회문화 요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교회 이동 의향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향후 신앙생활 포기 의향에 대하여서는 개인신앙 요인, 교회문화 요인, 헌신강요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귀식에 대한 R제곱값은 .137으로 13.7%(수정 계수는 13.3%)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Durbin-Watson은 1.920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신앙생활 포기 의향과 관련된 주요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신앙 요인(표준화 $\beta=.231$, $p<.001$), 교회문화 요인(표준화 $\beta=.140$, $p<.05$), 헌신강요 요인(표준화 $\beta=.137$,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신앙, 교회문화, 헌신강요 요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신앙생활 포기 의향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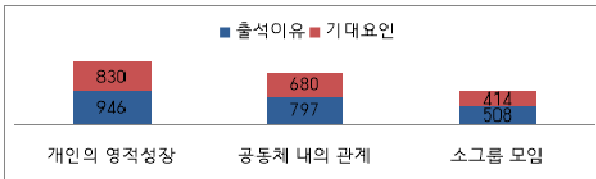
〈표 9〉 ‘향후 신앙생활 포기 의향’에 대한 주요 변수의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표준화 β	t	유의수준
향후 신앙생활 포기	상수	.775	.047		16.391	.000
	목회자 요인	-.034	.020	-.070	-1.690	.091

의향	청년공동체 요인	-.026	.018	-.054	-1.410	.159
	개인신앙 요인	.120	.021	.231	5.665	.000
	교회문화 요인	.081	.030	.140	2.688	.007
	헌신강요 요인	.063	.021	.137	3.019	.003
	R=.371, R square=.137 , 수정된 R square=.133 Durbin-Watson=1.920					

4. 청년들의 교회 출석 이유 및 기대요인 상위 3가지(복수응답)

청년들의 교회 출석이유에 대한 응답 상위 3가지 요인으로 개인의 영적 성장(n=946), 공동체 내의 관계(n=797), 소그룹 모임(n=508)이 꼽혔고, 청년부가 해 주어야 할 것에 대한 요인으로 개인의 영적 성장(n=830), 공동체 내의 관계(n=680), 소그룹 모임(n=414)이 꼽혔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청년들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년 동료들 간의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및 역동적인 소그룹의 활성화 등을 교회 출석 이유 및 청년부가 채워 주어야 할 기대요인으로 꼽았다.



[그림 1] 청년들의 교회 출석 이유 및 기대요인 상위 3가지

V. 기독교교육적 함의

본 절에서는 수행된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주요한 의미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청년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앙 고위험군 청년에 대한 신앙관리 영역, 청년 신앙성장을 위한 본질적 사역의 강화 영역, 청년부 목회자의 통전적 신앙교육 역량 강화 영역, 현대 중심의 교회문화 형성 영역, 청년들의 자발적 헌신을 위한 회복과 안식의 필요성 영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앙 고위험군 청년에 대한 신앙관리

한국교회는 신앙고위험군 청년들에 대한 개인 신앙 관리 및 회복을 위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신앙 고위험군 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을 포함한 전체 청년에 비해 목회자 요인, 청년 공동체 요인, 개인신앙 요인, 교회 문화 요인, 헌신 강요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는 신앙 고위험군에 대한 특별한 신앙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과 그러한 신앙적 현상에 대해 대응하는 것에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도 전체 청년에 대한 신앙성숙도 및 종교성에 대한 연구(김수정, 2007; 김영수, 2019)나 한국사회 청년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분석 및 이론적 대안(성석환, 2016; 이규민, 2018) 등은 있었으나 신앙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분석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탈신앙 청년들의 이탈과정에 대한 질적연구(이명훈, 2018)는 있었으나 양적연구를 통해 보편적인 신앙 위험군을 연구하는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신앙고위험군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 및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의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여 현 교회를 떠나려는 의향을 가진 청년들이 320(31.5%)명이나 차지하였고 신앙 자체를 포기하려는 의향을 묻는 다른

질문 항목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년도 80명(7.9%)이나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신앙 고위험군 청년들에 대한 세밀한 신앙관리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청년 신앙교육 방법 중 하나는 청년들의 신앙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및 측정 앱(app) 개발이 시급하다. 청년 신앙건강성 측정 척도란 청년들의 신앙 및 생활 상태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건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영역이 신앙건강의 위기요인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청년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들의 신앙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척도를 개발하여 한국교회 청년부에 보급해야 한다. 또한 교회의 사역자들은 이를 토대로 개별 청년들이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위기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최근 과학기술과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신앙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앱(app)을 개발하여 청년 신앙교육 현장에 보급한다면 신앙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성숙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적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앙위기 청년들의 신앙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신앙교육과정을 설계 및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교회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신앙교육을 ‘집단중심’으로 실천하고 있다는데 있다. 사실 신앙의 수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신앙교육도 개별화된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개별화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개인의 신앙건강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활용하여 개인별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신앙교육을 통해 개인의 신앙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고도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청년 신앙 성장을 위한 본질적 사역의 강화

한국교회는 신앙 고위험군 청년들의 신앙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교회를 옮길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 신앙요인, 목회자 요인, 교회 문화 요인이 꼽혔고 향후 신앙생활 포기 의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개인신앙요인, 교회문화 요인, 헌신 강요 요인 등이 꼽혔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와 청년부에 기대하는 요인이 다른 아닌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년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르지 아닌 신앙의 본질적 가치를 탄탄하게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당수의 신앙위기 청년들은 신앙적인 문제로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고자 고민하고 있다. 종교 자체에 대한 회의감, 영적인 필요의 채워지지 않음,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해답 등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기독 청년들의 종교성에 관하여 연구한 김영수(2019, 595)의 연구 결과도 청년들이 개인적인 기도, 말씀과 같은 본질적인 신앙활동이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분석하면서 청년들의 소속감이 “하나님에 대한 내적 확신이나 신념 같은 것에서 나오기보다는 대인관계 같은 것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교회와 청년 사역자들은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본질적인 신앙 문제에 대해 답하고 함께 고민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블 클래스, 교리교육,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같은 본질적 신앙교육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본질적 신앙을 세워주는 기초적인 교

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앎과 삶이 분리되는 교육의 방식이나 주입식 방법과 같은 일방향적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자신의 신앙적 고민을 드러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역동적 소그룹과 회복적 소그룹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시기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이다(Arnett, 2004, 7-17; 박향숙, 2013, 183에서 재인용).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이 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블 클래스는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한 성경의 핵심 내용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기독교 핵심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신앙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이다. 더불어 성경의 내용을 삶의 체계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성경의 관점으로 삶의 본질적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도 필요하다. 고경국(2020)의 연구에 의하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앎과 삶이 조화롭게 된 교리교육이 청년들의 신앙성장과 성숙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신앙 고위험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 친화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신앙기초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청년부 목회자의 통전적 신앙교육 역량 강화

기독교 청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주고 신앙적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청년부 목회자의 인격과 자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는 청년의 상당수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목회자 요인 중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목회자의 설교'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 '상처되는 말' 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교회를 이동하고자

하는 요인들 중에 개인 신앙요인 다음으로 목회자 요인이 꼽혔다는 것은 목회자의 신앙적 자질과 목회자로서의 목회적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박동규(2014, 156-157)는 청년 사역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전문사역자의 부재를 언급하면서 청년사역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함영주·전병철·신승범·이현철·조철현(2015, 21-22)도 한국교회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교육사역자의 자질과 역량을 꼽았는데 특히 사역적, 인격적 통합역량의 부족, 그리고 사역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는 부서사역을 담당하는 교육사역자들의 역량이 학습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역자의 통전적 사역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를 제시하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사역을 통해서만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강단 위에서의 말씀과 강단 아래에서의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통해 청년들에게 신앙적 도전과 감화를 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사역자는 과거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수정하여 변혁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훈련하고 습득하며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청년들은 목회자의 행동이나 상처되는 말 등을 통해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대답하였고 그 결과 교회를 옮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년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목회자로서의 개인 신앙 관리에 철저해야 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 리더십을 훈련하여 청년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청년 사역자는 전문성을 배양해야 한다. 즉 현재 청년들이 경험하는 신앙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그러한 신앙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역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년부 사역자들 간의 연대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배움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역의 전문성을 길러 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 내의 교회학교 사역은 주로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사역 위주로 구성되

어 있고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도 이러한 부서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청년사역은 교회 내에서도 지원을 받기 힘든 구조이다. 여기에 더하여 청년부 사역자들이 청년사역의 전문성을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관 및 교육과정도 그리 많지 않아 결국 청년사역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사역자들을 위한 사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 간 배움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청년사역을 배우고 건강한 청년사역을 위한 정보공유를 활발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년사역자들의 신앙적, 인격적, 교육적 역량 강화는 결국 청년들의 신앙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 현대 중심의 교회문화 형성

청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의 전체적인 문화의 개선 및 청년부 자체의 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거나 신앙자체를 떠날 의향이 있는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으로 ‘교회의 문화’ 요인이 꼽혔다. 즉 청년들은 다른 청년과 비교되는 현실, 현 교회의 문화가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음, 직분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비민주적인 의사소통,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현실로 인하여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을 떠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기 청년들의 경우 청년부 내에서 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끼리끼리 문화, 상처 주는 말로 인해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의향을 드러낸 경우가 많다. 박동규(2014, 157-158)는 청년부 쇠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교회의 관심부족이라고 주장한다. 이상화(2007)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적응하기 힘든 교회의 문화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교회 전체적인 문화가 청년들을 이해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성환(2008, 68-69)은 “교회의 대학 청년부가 청년들에게 위로와 안식과 소

망을 주는 공동체이기보다는 상처와 부담을 주는 공동체”라고 상기시키면서 청년부 내의 문화가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한국교회와 청년부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부모의 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회의 문화 자체가 그러하지 못하여 청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년부의 구조적인 특징은 주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청년들이 청년부의 핵심적인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 문화는 같은 신앙문화를 경험한 청년들끼리는 매우 강한 결속력을 가져다주지만 반대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주변인들이나 혹은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에게는 매우 높은 청년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 스스로가 개방적이고 환대하는 문화를 만들어 청년부 주변에 머무는 다수의 위기 청년들을 포용해야 하며 특히 ‘끼리끼리’ 문화와 같은 폐쇄적인 문화는 현대의 공동체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강문규(2014, 416)는 청년부 내에서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통한 성숙을 위하여 청년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그룹은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과 안정감 그리고 소속감을 심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청년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회 전체가 청년들을 환대하는 문화적 구조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청년들의 자발적 헌신을 위한 회복과 안식의 필요성

건강한 청년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한 내적인 동기부여를 갖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복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위기 청년들은 헌신과 관련된 요인 중에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헌신을 강요하는 문화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자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신앙적 헌신 자체를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의 문제라기

보다는 신앙적 헌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과도한 신앙적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의 문화에 대한 현실적 평가로 보인다. 또한, 동시에 소위 신앙이 좋은 청년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청년부 및 교회의 사역을 맡기는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낸 응답이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상화(2007)가 언급한 대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분석과 일치한다. 즉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신앙의 내적인 동기부여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많은 과업을 감당하다 보니 번아웃(burn out) 현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신앙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한국교회의 구조상 고등학교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면 소위 '배우는 구조'에서 '섬기는 구조'로 편입이 된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교회와 청년부에서의 섬김이 자발적이거나 혹은 기쁨으로 섬기는 사역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동시에 소위 교회에 잘 다니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헌신을 요구할 경우 그것으로 인해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해야 하는 의무로서 청년부 사역에 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청년들은 이러한 '부담스러운 청년부'를 더 부담스러워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공동체는 '쉽과 안식'을 주는 공동체, '회복과 생명을 주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청년들을 사역의 파트너로 인식하되 그보다 먼저 신앙적인 성숙과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할 성도로 인식해야 한다. 청년들의 종교적인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유지은, 전예령, 2019, 298-300). 따라서 청년들에게 신앙적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야 하며 이를 통해 신앙과 삶에 만족하며 살도록 도와야 한다.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청년들의 교회이등 및 신앙생활 포기와 관련한 인식도를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논문이다. 기독교청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데 특히 목회자 요인, 청년 신앙공동체 요인, 개인신앙 요인, 교회 문화 요인, 헌신 강요 요인 등이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청년이 신앙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고 교회와 청년부의 직접적인 간섭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교회는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부서를 운영해 왔는데 주로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까지의 교육체계에 집중해 왔고 모든 교육적 역량을 이러한 부서들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년들에 관한 관심이나 교육적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등의 신앙 고위험군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교회는 청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경건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내적동기가 회복되면 개인의 신앙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청년부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청년부 내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선순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역자들은 청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청년사역의 전문성을 길러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삶이 이원론적이지 않고 삶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점차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허리와 같은 청년세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을 떠나고자 하는 요인을 발견했다. 이제 후속연구를 통해 신앙고위험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네러티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 개발과 실제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부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문규 (2019). 현대 한국교회 청년영성을 위한 기독교 영성교육에 대한 고찰. **영산 신학저널**, 48, 235-267.
- [Kang, M. K. (2019). A study on the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for the spirituality of young people in modern Korean churches. *Journal of Yousan Theology*, 48, 235-267.]
- 강문규 (2014). 한국 교회 청년부 부흥방안에 대한 연구: 소그룹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41, 387-420.
- [Kang, M. K. (2014). A study for the revival of young adult ministries in the Korean church - focus on small group discipleship training. *Theology and Praxis*, 41, 387-420.]
- 고경국 (2020). 청년부 교리교육이 신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통합연구.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홍신대학교 일반대학원.
- [Ko, K. K. (2020). Integrated study of the effect of the doctrinal education on the young adult group. Doctoral thesis at the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 김광률 (2012). 청년영성교육을 위한 교회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30, 199-224.
- [Kim, K. R. (2012). Spiritual educational tasks for the young adult in the Korean protestantism.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30, 199-224.]
- 김성환 (2008). 대학 청년부 교육의 문제점과 상담. **기독교교육연구**, 18, 54-78.
- [Kim, S. H. (2008). Issue of young adult education and counseling.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18, 54-78.]
- 김수정 (2007). 기독교청년의 신앙성숙도와 자존감과의 관계. **신학과 목회**, 27, 287-313.
- [Kim, S. J.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maturity and self-esteem of a Christian youth. *Theology and Ministry*, 27, 287-313.]
- 김영수 (2019). 교회 청년들의 종교성: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3, 577-600.

- [Kim, Y. S. (2019). The religiosity of young people in Presbyterian church. *Theology and Praxis*, 63, 577-600.]
- 김재희, 박은규 (201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 257-284.
- [Kim, J. H., Park. E. G. (2016). The effect of achievement type of developmental tasks of early adulthood on the perceived social isolation in youth. *Studies on Korean Youth*, 27, 257-284.]
- 김정은, 박정윤, 문의정 (2019). 청년기 발달과업 달성이 청년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4, 171-193.
- [Kim, J. E., Park, J. Y., Moon, E. J. (2019). Effects of developmental task achievement of young adults' well-being.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4, 171-193.]
- 김정화, 강연정 (2020). 기독교청년을 위한 성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기독교교육논총**, 64, 237-287.
- [Kim, J. H., Kang, Y. J. (2020). Development and effect of sexuality educ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hristian young adult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237-287.]
- 노충현, 박용미, 정원희(2020. 10. 13). 한국교회, 목회자 늘고 성도 줄었다. 기독교신문,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477&page=2&total=1147>
- [Noh, C. H., Park, Y. M., Jung, W. H. (2020. 10. 13). Korean churches, more pastors and fewer members. Kidoknews]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Religion in Korean societ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박동규 (2013). 교회성장을 위한 청년부 활성화 방안. **개혁주의 교회성장**, 7, 33-65.
- [Park, D. K. (2013). Young adult group activation plan for church growth. *Reformed Church Growth*, 7, 33-65.]

- 박동규 (2014). 포스트모던 사회의 청년목회 실체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 8, 138-168.
- [Park. D. K. (2014). A study for youth ministry of post-modern society. *Reformed Church Growth*, 8, 138-168.]
- 박종언 (2016. 05. 03). 청년들, 교역자에 실망 커 교회 떠난다. 한국성결신문,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18>
- [Park. J. E. (2016. 05. 03). Youth leaves church due to pastor, Kehcnews]
- 박향숙 (2013). 신생성인기의 신앙 이해. **복음과 교육**, 13, 177-204.
- [Park. H. S. (2013). Understanding emerging adulthood faith. *Gospel and Education*, 13, 177-204.]
- 박향숙 (2014). '신생성인기'를 위한 기독교신앙교육. **기독교교육논총**, 37, 295-323.
- [Park. H. S. (2013). Christian faith education for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7, 295-323.]
- 성석환 (2016). 한국사회의 청년문제와 한국교회의 과제: '후기세속사회'의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장신논단**, 48, 95-121.
- [Sung. S. H. (2016). The problem of youths in Korea and the public theological task of church in the post-secular society.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8, 95-121.]
- 신승범, 이수인, 이종민, 이현철, 전병철, 함영주 (2021. 4).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2021 ARCC 발표대회 자료집, 서울.
- [Shin. S. B., Lee. et al. (2021. 4). Why do they leave the church? . 2021 ARCC Forum]
- 유지은, 전예령 (2019). 기독교 대학생의 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감,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 **기독교교육논총**, 58, 285-310.
- [Yoo. J. E., Jeon. Y. R. (2019). Relationship among religious well-being existential well-being,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8, 285-310.]
- 이규민 (2018). 현세대 청년들을 위한 교육목회의 과제와 방향.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7, 245-277.

[Lee. K. M. (2018). Tasks and prospect of the educational ministry for young adults in Korea.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07, 245-277.]

이규민, 김은주(2020). 청년기의 기독교 변형화교육에 관한 연구: 융의 무의식 대면과 로더의 변형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3, 121-150.

[Lee. K. M., Kim. E. J. (2020).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al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adults: With a focus on the employment of Jung's unconscious confrontation and Loder's transformational theor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121-150.]

이명자, 문병상 (2000). 청년기의 발달 특성. **한국발육발달학회지**, 8, 97-107.

[Lee. M. S., Moon. B. S. (2000).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Growth and Development*, 8, 97-107.]

이명훈 (2018). 탈교회 청년의 교회사탈 과정에서의 갈등경험 연구. **선교신학**, 52, 179-203.

[Lee. M. H. (2018). A study on conflicts that separated church youths face in the process of leaving church. *Theology of Mission*, 52, 179-203.]

이상화 (2007).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서울: 브니엘.

[Lee. S. H. (2007). *The 33 reasons of moving church among young adults*. Seoul: Phnel.

이원규 (2010).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Lee. W. K. (2010). *Crisis and hope of Korean church in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sociology*. Seoul: KMC.]

최민영, 홍경화 (2015). 기독교 청년들의 종교성과 강박적 성향의 관계. **복음과 상담**, 23, 287-314.

[Choi. M. Y., Hong. K. H. (2015). Association between young adult Christians' religiosity and obsessive compulsive symptoms. *Gospel and Counseling*, 23, 287-314.]

- 최종일 (2020). 인구절벽 시대에 기독교 청년층을 위한 목회 돌봄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8, 391-409.
- [Choi. J. I. (2020). A study on pastoral care for Christian young adults in the age of a demographic cliff. *Theology and Praxis*, 68, 391-409.]
- 학원복음화협회 (2017). **청년 트렌드 리포트: 우리 시대 청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 [Counsel of school evangelization. (2017). *Youth trend report: What do young adults of our time live by?*. Seoul: Korean Christian Student Publishing.]
- 한혜인 (2019. 07. 03).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주장 아닌 공감 필요해”. 데일리굿뉴스,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8900
- [Han. H. I. (2019. 07. 03). The reason why the younger generation leaves the church: They need empathy, not argument. Dailygoodnews]
- 함영주, 전병철, 신승범, 이현철, 조철현 (2015). 한국교회교육에 대한 교육지도자의 인식도 연구. **성경과 신학**, 75, 1-33.
- [Ham. Y. J., Jun. B. C., Shin. S. B., Lee. H. C., Cho. C. H. (2015). A study of church ministers' recognition on church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75, 1-33.]
- Arnett, Jeffrey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Abstract

Analysis of Factors of Korean Church Youth's Church Movement and Giving Up on Christian Faith

Young Ju, Ham

Associate Professor, Chongshin University

Hyun Chul, Lee

Associate Professor, Ko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young adult ministry by analyzing the reasons why young people move to church and give up their faith. In this study, data from ARRC research in 2021 were used, and 1017 youths(male: 409, female:608) nationwide were used as analysis targets. Through this study, the reasons for the intention of young people to move to church and give up their religious life were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it was investigated that young people in Korean churches left the church or gave up their faith due to the factor of pastor, the factor of youth community, the factor of personal faith, the factor of church culture, and the factor of compulsory devotion. Based on these results, five important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youth ministry were suggested.

《 **Keywords** 》

Korean Church, Young adult, Dilemma, Faith life, Church move, Pastor

- 투고접수일 : 2021년 5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6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28일